



보건복지부,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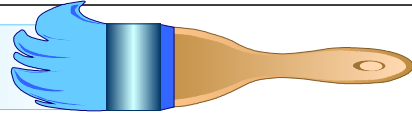
-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·사망8건 발생 -

- 보건복지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,
 - 2019년 9월 20일(금) 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(위원장 문창진)」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 - 현재,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“중증 폐 질환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,
 - 특히,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“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”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<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>

- 대부분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 호소
- 일부는 소화기계통(메스꺼움, 구토, 설사) 및 기타 증상(피로감, 발열, 체중감소) 보고
-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, 심장박동수 증가,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

- 아울러,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“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”, “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”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“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,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”고 전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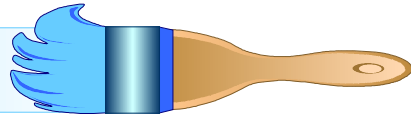
< 일반 국민 >

- ①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질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.
- ② 특히 아동·청소년,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액상전자담배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교사 및 학부모 >

- ① 아동·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, 소화기 이상증상(메스꺼움, 구토, 설사) 및 기타 증상(피로감, 발열, 체중감소 등)을 보인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.

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



- ① 일반담배(궐련)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“중증 폐 질환 및 사망사례”와 “액상형 전자담배”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고 금연지원서비스(보건소 금연클리닉, 금연상담전화, 지역금연지원센터, 병원 금연치료)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-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, 호흡기이상 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, 소화기 이상 증상(메스꺼움, 구토, 설사) 및 기타 증상(피로감, 발열, 체중감소 등)을 경험한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.
- ③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, 개조, 분해,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합니다.

2019. 9. 26.

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